전남도 발굴 독립유공자 16명 '3·1절 대통령표창'

독립운동가 80명 발굴 지난해 보훈처에 신청…광역단체 최초 성과
'순천서 위친계 결성' 안응섭 선생 애족장 등 광주·전남 총 20명 포상

광주·전남에서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대한민국 자주독립과 민족정기 선양 등에 기여한 유공자 20여명이 포상을 받는다.

국가보훈처는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104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며 "전남에서 활동했던 안응섭(1886~미상) 선생에게는 민족대표 33인을 본떠 비밀결사 위친계(爲親契)를 결성하고, 장터 만세 시위를 계획한 공로로 애족장이 추서된다"고 26일 밝혔다.

안응섭 선생은 1919년 4월 3일 순천 동초면 신기리에서 위친계를 결성하고 4월 8일과 4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마을 주민에게 보성군 벌교시장에 모여 만세 시위를 벌일 것을 권유했다가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위친계는 '부모를 위해 만든 계'라는 의미로 경찰 감시와 체포를 피하고자 일상적인 친목계로 위장해 만든 이름이다. 3·1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 33인을 모방해 계원을 33인으로 구성하고, 장터 시위를 고무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담하는 등 조직적인 독립운동 비밀결사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보훈처는 평가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광주 3·1만세운동 발원지인 수피아여자중학교 내 윈스브로우홀 앞에서 3·1절 기념식을 갖고 건국포장(1명), 대통령 표창(2명) 및 광주시장 표창(3명) 등 유공자 표창을 한다.

건국포장 유공자인 고 조순창씨는 지주들에게 소작료 경감을 요구하고, 지주 서모씨가 신청한 가옥명도(家屋明渡)의 강제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돼 징역 6월의 옥고를 치렀다. 대통령표창 유공자인 고 이계웅씨는 나주군에서 독립운동 자금 모집을 권유하는 포고문과 영수증에 날인 할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총장 명의의 도장을 제작하다 체포됐고, 고 이성지씨는 소작인 공조회 활동 등을 방해하는 번영회원을 응징하다 체포돼 벌금형을 받았다.

전남도가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독립운동가 16명도 이날 서훈을 받는다. 전남도는 도내 마지막 한 분의 독립운동가까지 찾아내기 위해 독립운동가 80명을 발굴해 지난해 7월 국가보훈처에 서훈 신청했다.

이번에 서훈이 확정된 유공자는 지난해 전남도가 추진한 독립유공 미서훈자 발굴 1단계 사업 마무리 후 서훈을 신청한 대상자다.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가 직접 발굴한 독립운동 미서훈자에 대한 서훈 확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또 신청자 80명 중 현재까지 16명(20%)이 서훈을 받아 전남도가 역점 추진한 독립유공자 발굴사업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훈 훈격은 '대통령 표창'이다. 지난해 제77주년 8·15 광복절에 순천과 담양, 곡성 각 1명, 무안 3 등 6명이, 오는 제104주년 3·1절에 목포와 순천, 구례, 영암, 무안, 영광 각 1명, 해남 4명 등 10명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제77주년 8·15 광복절에 서훈이 확정된 무안 출신 독립운동가 고 이복점, 고 이은득, 고 이금득, 3명의 유공자는 1919년 당시 목포 만세 시위에 참여한 3남매인 것으로 밝혀져 감동을 주고 있다.

해남 출신 독립운동가 고 박기술 유공자의 대통령 표창은 해남에 거주는 딸에게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직접 전수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늦었지만 독립운동가로 서훈이 확정된 16분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고, 전남도가 직접 발굴해 서훈을 신청한 나머지 64분도 조속히 서훈이 확정되도록 국가보훈처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헌혈' 동참해 주세요" 지난 24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사랑 나눔 헌혈 행사에서 북구청 공무원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북구는 코로나19와 방학 등으로 인한 혈액난 해소를 위해 이번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K-푸드 축제로

여수박람회장 10월 6~8일…전남도, 음식 개발·세계 미식관 운영

전남도가 올해부터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국제행사로 확대 개최하기 위해 24일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제29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발빠른 준비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선 박창규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관광·음식·축제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올해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 유치, 엠지(MZ)세대 입맛에 맞는 음식 개발, 민속놀이·체험·시식코너 확대, 야간 프로그램 개발, 제빵·전통주 별도 부스 제공 등을 집중 논의했다.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10월 6일부터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그동안 전남 22개 시·군의 맛을 소개했던 것을 크게 보완해 20개 국 이상 주한대사관이 참여하는 세계미식관과 미식산업관 등을 선보인다. 이전과 달리 남도의 맛과 세계의 맛을 같이 맛보는 국제행사로 치를 방침이다.

또 명인관에서는 남도음식명인 9명의 요리비법과 명인음식을 체험하도록 하고, 남도 섬 음식 등 스페셜 전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22개 시·군 으뜸음식 판매장터, 시·군별 특산품, 도내 청년창업, 세계요리 판매장 운영을 통해 다양한 대표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통주 체험과, 남도 빵 만들기, 남도장터유에스(US)몰과 아마존 수출 상위 품목 시식 등 다양한 체험거리도 계획하고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케이-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에 선정되는 등 남도음식의 매력과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수차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케이-푸드를 대표하는 국제적 음식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단수사고 보상 신청, 제출 서류만 한보따리

다음달 2~17일 접수…세무자료·영수증 등 자료 많고 직접 접수 불만

광주시가 수돗물 단수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소액으로 예상되는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세무자료(업소)와 피해물품 구입 영수증·사진 등 까다롭고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직접 접수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탓에 시민들 사이에선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17일까지, 덕남정수장 유출 밸브 사고에 따른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보상은 단수 및 흐린 물이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2월 수도요금 중 이틀 분을 감면하며, 2월 수도요금은 4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반영된다.

또 이번 정수장 사고에 따른 다양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직접 피해 접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신청은 ▲저수조 청소 ▲생수 구입비 ▲필터 교체비 ▲영업보상 등이다. 보상신청을 희망하는 수돗물 피해세대는 피해보상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5개 자치구 수도요금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일반주민) 또는 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기관),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신청자 명의)이다. 또 피해로 인한 물품구입 영수증이나 사진을 제출하고, 영업장의 경우 매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자료 등 수돗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보상신청을 접수 받은 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월까지 보상 유무, 보상금액 등을 결정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보상과 관련해, 단수사고 당일 오후 장사를 포기했다는 한 업주는 "(광주시도)세금으로 피해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영업자 등의 상황을 고려해 방문접수 등 다양한 행정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대부분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시간을 쪼개 각종 피해 증빙자료에다 세무자료까지 직접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상금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최대 3년간 보험료 부담액의 50%…오늘부터 신청

광주시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광주지역 1인 자영업자로, 올해 부담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50%다.

신청은 27일부터 광주시기업지원시스템(https://www.gjbizinfo.or.kr)에서 하면 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은 종료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올해 1월부터 최대 3년간 낸 보험료의 50%를 소급해 환급받는다.

광주시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만 입력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자 본인의 보험 가입 여부 및 납부 확인을 거쳐 사업자 계좌로 분기별로 입금할 계획이다. 기존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한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마련하겠다"며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